

“유럽 先進國과 科技협력 추진”

盧대통령지시, 高速전철 國內참여 확대도

유럽巡訪계기 科技협력방안 構體化

盧泰愚대통령은 11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產業化과정에서 필요 한 과학기술을 주로 美國과 日本에서 편중 도입해 왔으나 이번 유럽순방을 계기로 유럽선 전국과의 내실있는 과학기술협 력이 이루어지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지시했 다.

盧대통령은 이날 李祥羲 과 기처장관으로부터 유럽순방국 과의 기술협력문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고 속전철기술 개발문제와 관련,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기술 진과 산업체를 적극 참여시켜 國產化 기술개발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가용기술인력을 동원하는 기술 개발계획을 교통부등 관계부처 와 협조하여 수립토록 하라』고 말했다.

盧泰愚대통령의 영국·서독· 프랑스·헝가리등 이번 유럽순 방(11월 18일~12월 4일)길에는 李祥羲 과기처장관이 수행, 이들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방 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것으 로 보인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들 국 가와 협의될 수 있는 분야는 ▲첨단기초연구 분야의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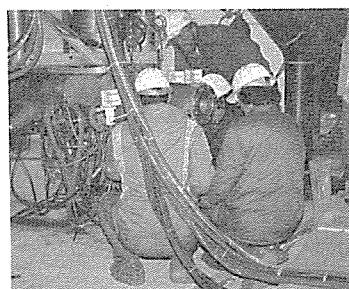
연구 집단간 협력과 교류 ▲EC 의 지능처리 신기술사업인 ESPRIT 등 정보산업기술협력 ▲고속전철관련 전력·전자기 술·시스템 엔지니어링·초전 도기술을 비롯한 극한기술과 신소재기술 ▲대기와 수질관리·폐기물처리등 환경분야기술 ▲태양열·風力·潮力·수소에너 지등 에너지이용기술 ▲신도

시 건설과 관련된 기술 ▲자동화·신소재레이저 기술 ▲深海底탐사·과학위성·고속증식로·항공우주·원자력분야의 거대 과학연구 협력 ▲이들 국가의 경험있는 퇴직 과학자·기술자·교수등 관련전문가의 장·단기 초빙활용 등이다.

한편 이번 순방기간중 科技處는 4개국 과학기술장관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또 西獨연구협회 및 우주항공연구소, 英國의 임페리얼大·왕립협회,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초고속열차회사(TGV), 헝가리의 과학원·부다페스트工大등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原子力 安全技術院 설립

原電 安全규제 및 방사능조사사업 수행



原電의 안전규제 및 방사능 조사·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할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이 설립된다.

科學技術處는 원자력생산이 용실적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原電건설·운영의 국내 주도를 위한 안전규제 기술의 차립과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원

자력안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기국회회기중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초에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을 설립 키로 했다.

신설되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은 안전심사·조사 및 관련기 술개발등 원자력법에 의한 정 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규제 정보관리, 방 사선방호 안전기술 지원 및 환 경방사능조사·평가등의 업무 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에너지연구소 부설 원자 력안전센터를 母體로 설립될 이 안전기술원의 운용재원은 정부출연금과 원자력사업자 부 담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科學探査ロケット·衛星 93년 발사

宇宙기술올림픽 93년 大田貿博 때 동시 開催

레이저 등 核心尖端과학기술분야 선정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과학 연구용 탐사로켓과 과학인공위성이 당초계획(96년)보다 3년 앞당겨 93년에 발사된다.

政府는 10월 25일 90년 중반 개최 예정이던 宇宙첨단기술올림픽(Space - tech Olympic)을 오는 93년 國際貿易 산업 박람회와 함께 大田에서 동시에 개최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주첨단기술올림픽 기간중 과학연구용 탐사로켓 SR-1과 한국형 소형과학위성 코새트(KORSAT)를 발사키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작업에 들어갔는데 SR-1로켓은 1백20kg급으로 오존 스페이스 플라스마 대기총탐사등 대기과학분야와 신소재 및 정밀화학분야 연구를 위한 기기를 탑재하고 고공1백~1백50km까지 도달해 대기오존층과 이온층을 관측하게 된다.

또 우주환경측정을 위한 실험인공위성인 코새트는 60명의 인원과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92년까지 설계와 제작을 끝내고 우주올림픽 기간중 프랑스의 아에로 스페셜社의 로켓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주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을 조기 획득하고 이를 국내 산업체에 파급,

과기원 및 타대학원을 통해 교수지원, 눈문지도, 학위수여등을 담당하며 실험장비제공, 연구원 출장, 경비부담등은 산업체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처는 KAIST의 대덕이 전이 완료되는 93년 봄학기부터 석사 3백명, 박사 1백명을 모집할 계획인데 개설학과는 일반대학원의 기존학과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산업체수요에 맞춘 첨단기술분야로 한정할 방침이다.

4개法案 새로 제정

科技處, 科技관련법 손질

政府는 21세기 科學立國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장치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등 9개 과학기술관련법의 제정 및 일부기존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科技處에 따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비롯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 「첨단기술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 4개법안을 상정하고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 및 「한국에너지연구소법」의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도에 「정보사회기본법」 「반도체칩보호법」 「국제과학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우주소년단 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화의법」 등 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주올림픽의 참가범위를 정밀과학, 레이저, 극한기술, 생체응용센서, 고온용 복합재료기술 등 핵심첨단기술분야로 선정하는 한편 우주올림픽을 자주국방체계 구축에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우주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의 연계작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우주첨단기술올림픽에 美·蘇·日·西獨·영국·프랑스·캐나다등 선진7개국과 中國等 東西양전영 국가들을 모두 초청할 방침이다.

洪陵에 民間科技院

92년 大德이전후 설립

서울 洪陵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오는 92년까지 大德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民間과학기술원이 들어서게 된다.

과기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체의 첨단고급기술인력 양성과 산업현장 근무자에 대한 재훈련을 목적으로 KAIST 分院형태의 산학협동교육기관을 세워 고급기술인력 양성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현재의 홍릉캠퍼스 시설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부는 건물유지비만 부담하고

「科學技術公園」 건립 추진

회의장·情報센터 등 綜合機能 수용

現 科總회관과 연계 - 圈域別 네트워크構築

國內外의 각종 과학기술 학술활동과 급증하는 정보교류에 대처하고 과학기술문화 창달·정착에 求心體의 역할을 할 「科學技術公園(또는 科學技術의 殿堂: 假稱)」의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科學技術處는 최근 각종 과학기술관련회의 개최는 물론 관련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科總을 중심으로 科學技術公園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31일 朴泰源 科總회장을 비롯 관현 학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조찬회에서 李祥義과기처장관이 과학기술계의 숙원인 과학기술 공원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과학기술인들은 우리나라가 環太平洋지역 과학기술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국제규모의 학술 회의장 하나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과학 기술공원 건설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웃 日本만해도 60년대에

이미 각종 국제회의 유치 및 국내외 과학기술교류의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京都국제회의장을 건설, 세계적수준의 학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교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首都圈에도 국제수준의 전용회의장이 없어 비싼 호텔을 빌려쓰거나 대학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藝術분야에서 藝術의 전당, 經濟분야에서 무역센터·건설회관·중소기업회관, 體育분야에서 올림픽공원등 타분야는 훌륭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문화발전을 뒷받침해온 과학기술분야가 오히려 타분야에 비하여 시설기반이 취약한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현재 과학기술인을 위한 交流의 장소로 科總會館이 이용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달아 현대적인 학술 회의를 수용할 수 없으며 科總이 現회관 옆에 추가로 확보한 부지도 협소하여 당초 계획대로 단순히 學會학술활동만을 수용할 「科學技術振興센터」의 건립은 가능하나 종합기능을 갖춘 과학기술전당으로서는 부적합하므로 주변환경이 폐적하고

종합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게 과학기술계의 表象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科總이 최근 작성한 과학기술공원추진계획(안)의 기본구상은 과학기술의 도약을 통한 2천년대 선진복지국가 건설의 국민적염원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과학기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문화를 상징하는 表象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과학기술공원에는 과학기술회관을 비롯 과학기술정보센터, 과학기술전시관, Intelligent Building 등을 수용함으로써 과학기술인 상호교류는 물론 첨단과학기술정보수집·제공, 과학기술문화의 보급·확산, 學·研·產의 접합 Core의 場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

이 계획안은 서울근교에 세워질 本部 밑에 현 科總會館을 중심으로한 서울圈, 光州를 중심으로한 湖南圈, 大德연구단지를 중심으로한 中部圈, 浦項을 중심으로한 領南圈을 연계시키는 圈域別 Network를 구축하기로 했다.

科總은 이 과학기술공원의 위치를 국내외 과학기술계인사가 쉽게 모일수 있고 大德연구단지와 1시간대 교류가 가능한 지역으로 후보지를 물색하는 한편 약 1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소요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基礎연구資金 확보위해 總力경주

기초연구활성화推進協, 對 國會활동 강화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0월17일 科總회의실에서 基礎研究 활성화를 위한 政策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구활성화추진협의회(회장 朴泰源 科總회장)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기초연구 활성화자금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협의했다.

高允錫추진본부장(서울大 자연대교수)을 비롯 鄭根模 한국 과학재단이사장, 姜博光 과기처연구개발조정실장,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초연구자금으로 요청한 3천억원 가운데 國會 經濟科學위원회에서 한국과학재단의 기초연구지원비를 합하여 8백3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남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증액 또는 무삭감 통과될 수 있도록 對國會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또 최근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144개 우수연구집단중 우선 30개 우수연구집단에 대해 10억원씩 지원하는 문제와 大德·浦項·光州등 3개 지역별 기초연구센터의 지원금 3백억원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처 및 정당, 국회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자립의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연구활성화에 가용자원이 충동원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科總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는 오는 2천년까지 기초연구투자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出捐적립하여 최소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년에는 88歲計剩餘金 3조3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을 기초연구활성화자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데 이어 朴泰源회장을 비롯한 기초연구활성화추진협의회위원들이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장관, 각 정당의 총재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禮訪, 면담을 통해 기초연구투자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낸 바 있다.

科技政策 방향 등 논의

韓·美 과기정책 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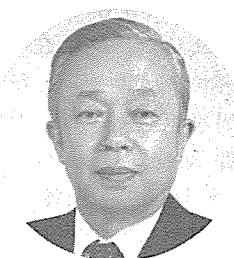
제1차 韓·美과학기술정책학술대회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韓·美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韓國의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와 美노스캐롤라이나大가 공동주최하고 양국의 科學財團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

는 韓美양국의 학계 산업체 정부관계자 14명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수립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참여방안」 「과학기술정책수립을 위한 산업체의 역할과 참여방안」 등 3개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세미나에서 姜博光 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장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개발전략을 △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특성화 △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화 △ 지역균형을 향한 지방화 △ 국제화 등에 중점을 두고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오는 2천년까지 과학기술 투자를 GNP대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아래 매년 20%씩 과학기술예산을 늘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수익중 3%를 과학기술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佛서 名譽理博 받아
朴泰源 科總회장



(朴泰源회장)

朴泰源 科總회장(仁荷大총장)은 10월 17일 仁荷大 자매결연대학인 프랑스의 르아브르대에서 명예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中國에 한국과학자협회 發足

초대 이사장에 姜貴吉교수 추대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4년 이후 결성을 추진해온 在中國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지난 7월 21일 中國정부로부터 공식승인을 받고 정식 발족됐다고 최근 科總에 알려왔다.

1971년 在美한국과학기술자협회(KSEA)의 창립을 계기로 在外동포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및 선진과학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된 在外科協은 이번 在中科協의 창립으로 在美·在英·在獨·在佛·在日·在카나다등 7개국으로 확대됐다.

在中國한국과학기술자협회는 앞으로 中國內 한국인 과학기술자들간의 유대강화와 지위향상, 정보교류는 물론 모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거주 동포과학기술자와의 학술정보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中國과학기술자들의 대표기관인 中國과학기술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족된 在中한국과학기술자협회는 우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조선족자치주 吉林省 延邊를 중심으로 北京天津하얼빈 沈陽 長春 上海 등지의 동포과학기술자 1백여 명을 회원으로 출범, 연말까지 5백명의 회원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姜貴吉 교수(延邊大 화학과)를 추대했다.

在中國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설립을 위해 지난 85년 이후 姜貴吉교수를 비롯한 延邊과학기술정보연구소의 崔英鎮소장등 在中동포과학기술자들이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방문, 설립에 따른 모국과의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다.

197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경제사회개발 장기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문 인적자원의 교류와 각종 학술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 기술이전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들을 科總을 國內창구로 하여 在外한국과학기술자협회와 조직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고급두뇌의 국내유치사업에 적극 기여해 오고 있다.

在日 韓國과학기술자 母國방문

4일간 연구기관·산업체 등 見學



◇母國을 방문중인 在日韓國과학기술자들이 11월 4일 3일 소전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在日韓國과학기술자 母國방문단이 3박4일간 母國의 과학기술 및 산업체를 돌아보고 11월 4일 귀임했다.

在日한국과학기술자협회 金在河회장을 단장으로 34명의 재일과학회원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 일행은 첫날엔 과학기술회관으로 朴泰源과총회장을 봉사한 뒤 李祥義과기처장관이 베푸 만찬에 참석, 국내과학기술계 인사들과 母國과학기술계와의 교류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이튿날 바로 산업시찰에 들어가 尉山석유화학공단

협의회를 비롯 現代자동차·現代중공업<주>·浦項綜合製鐵<주>등 산업체와 韓國化學연구소, 럭키중앙연구소,三星종합기술원등 연구기관을 견학했으며, 불국사·석굴암·국립경주박물관 등 경주지역의 고적지도 돌아 보았다.

이번 在日한국과학기술자의 母國방문은 科總과 在日科協이 재일한국과학기술자의 모국방문을 통하여 첨단기술의 국내이전과 학술교류는 물론 국내산업발전상을 소개하고자 科技處의 후원과 韓國科學財團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海事技術연구소 發足

忠南 大德에, 高附加價值 핵심기술 연구

2천년대의 海洋資源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高附加價值 선박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海事技術연구소(KRISO)가 10월 11일 忠南 大德연구단지에서 李祥義과기처장관을 비롯한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선박전조량에 있어서는 세계 2위국으로 부상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핵심기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양개발장비 분야에 있어서도 기반 기술이 취약한 실정에 비추어 이분야 연구를 전담할 연구소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데 각계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설립하게 된 것.

특히 造船產業은 타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분야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해 나가야 할 첨단 고부가가치형 선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점차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2천년대에는 9백억달러에 이르는 해양개발산업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존의 선박시장 점유율을 90년대에는 30% 이상으로 제고시키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해양개발시

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첨단선박관련기술과 해양기계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선박이나 해양기계기술은 효과적인 수송수단, 풍부한 해양자원확보등 공공형, 미래형의 대형복합기술이므로 國家的인 차원에서의 연구개발이 절실히 만큼 연구소는 앞으로 해저탐사 및 해양작업시스템개발, 선박설계, 생산전산시스템개발, 고성능 선박개발, 용접기술고도화, 기자재개발 및 성능시험평가, 안전성평가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사기술연구소는 현재의 韓國機械연구소 대덕선박분소의 연구시설과 인력, 연구장비 등을 보강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연구인력을 3백명으로 확충하고 해양개발장비의 연구 및 개발에 필수적인 해양공학수조등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절약기술 교환

韓·佛 공동세미나 개최

韓國動力資源연구소와 프랑스에너지관리공사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에너지절약 및 관리에 관한 韓·佛공동 세미나가 11월 27~28 양일간 프랑스

의 니스비치호텔에서 개최된다.

韓·佛과학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물에너지절약 △석탄이용기술 △태양에너지이용 △고효율가스터빈개발 △산업 및 도시폐기물이용 △전기부하 및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평가 및 관리등을 주제로하여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절약에 관한 상호간의 최신 에너지기술과 경험을 교환하게 된다.

제13대 科學館長에

徐正萬 감사관 취임



〔新任 徐正萬관장〕

科學技術處는 제13대 國立科學館長에 徐正萬감사관(53세)을 10월 16일자로 승진, 발령했다.

新任 徐正萬관장은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大邱大 법정대학과 忠南大대학원 및 美 노스이스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67년 과기처에 행정사무관으로 발을 들여놓은 뒤 종합계획담당관, 대덕단지관리사무소장, 정책연구관, 인력계획관, 정책기획관을 거쳐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감사관으로 재직해 왔다.

한편 전임 高明璨관장은 韩國화학연구소 감사로 부임했다.

“科學技術은 삶의 質 향상에 기여해야”

서울심포지움참석 노벨賞수상자, 10項「서울宣言」발표

基礎科學연구투자·科技人才 양성 강조



◇포항에서 있는 「21세기비전 - 노벨수상자에게 묻는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노벨상 수상자들.

化學, 物理學, 醫學, 文學賞 등 11명의 노벨상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人類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하여 토의한 「노벨수상자 서울심포지움」이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서울과 포항에서 열렸다.

韓國經濟신문사와 韓國放送公社가 공동 주최하고 애드워드 드 보노 아메리카財團 주관, 浦項종합제철 협찬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제3세계 外債문제를 비롯 AIDS, 세계 무역과 경제개발, 교육, 실업, 공해와 생태계, 세계평화, 분쟁 軍備문제등 現 人類가 처한 9개 주요문제에 관하여 폭넓은 토의가 있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가한 노벨수상자들은 한국학생들의 우수한 두뇌에 깊은 관심을 표명

하고 한국의 과학수준과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 공학, 실험물리학등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이들분야를 선도할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벨수상자들은 11월 1~2일 이틀간 포항종합체육장, 포항공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방문하고 특별강연 및 좌담회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가졌다.

포항공대생 및 대학원생, 서울대, 과기대 및 전국고교 우수학생등 1천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비전」이라는 주제하에 「노벨상 수상자에게 묻는다」라는 특별프로그램에 참석한 노벨상 수상자들은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2천년대의 전망과 불확실한 미래를 대

쳐해 나가는데 있어서 科學徒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으며 특히 부단한 자기개발과 발전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었다.

이번 서울 심포지움에는 物理學賞의 브라이언 조셉슨(英·73년) 이바르 지에베(美·73년) 베른 리히터(美·76년) 셀던 글래쇼(美·79년), 化學賞의 조지 포터(英·67년) 허버트 브라운(美·79년) 월터 길버트(美·80년) 더들리 허쉬바흐(美·86년), 醫學賞의 리타 레비 몬탈치니(伊·86년) 가이듀세크(美·76년), 文學賞의 윌레 소인카(나이지리아·86년)가 참가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 참가한 11명의 노벨상수상자들은 3일 21세기를 앞두고 인류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서울宣言」을 발표했다.

이들은 10개항으로된 「서울선언」을 통해 『과학과 기술은 평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유한 국가의 기술과 과학적자원은 빈곤한 나라들을 돋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계뉴스

고 강조했다.

「서울宣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은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지식의 입문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다.

2. 과학과 기술은 평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이같은 사명에 협력을 불어넣고 또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3. 인문과학이 과학도들의 필수교육 과목이 되는 것처럼 과학과목은 비과학도들의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학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4. 교육은 인간 개개인이 선택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의 시작에 불과하다. 인간은 평생동안 자신의 경력을 몇번이고 바꿀 수 있다. 특수기술에 대한 훈련은 교육과 다르다.

5. 질병 생태계파손 공해등의 문제는 인류의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가치이해가 이런 문제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비용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했었다면 오늘날의 많은 문제점들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6. 장기적 안목의 고찰이 단기적인 정치적 편의에 희생되

어서는 안된다. 미래세대의 복지는 현세대의 이익을 위한 저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7. 방법과 기술은 그를 수용할 환경이 적합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한 분야에서 성공적이었던 방법과 기술이 다른 상황에서도 성공하리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8. 인간의 기본적 가치는 계속되는 침해로 약화되어서는 안되며 또 이보다 우월한 가치를 강요하는 제도에 의해 밀려나서도 안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중의 하나이다. 모든

인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9. 전환기의 단기적인 경제적계산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나은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해할 수 있다. 이기적인 욕심 역시 진보를 방해한다.

10. 사고와 정보는 모두 가치를 증진 시킨다. 사고는 인간의 궁극적인 자원이다. 우리는 사고와 정보를 모두 필요로 한다. 세계의 미래는 우리가 갖는 가치의 건전성과 우리가 하는 사고의 질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韓國科技발전 展望 등 意見교환

科技處장관 초청 노벨상수상자 환영만찬

李祥義 과학기술처 장관은 11월 2일 롯데호텔에서 「노벨상 수상자 서울 심포지움」에 참가하고 있는 화학, 물리학, 의학, 문학 부문의 노벨상수상자 10명을 초청,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노벨상수상자 중에는 1973년 33세의 나이로 물리학상을 수상했으며, 「조셉 슐현상」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영국의 브라이언 조셉슨 박사를 비롯, 1979년 화학상수상자인 미국의 허버트 브라운 박사, 1986년 의학상수상자인 이탈리아의 리타 레비 몬탈치 니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만찬에는 노벨상수상자 외에도 徐燦玗 학술원원장, 趙完圭 서울대총장, 安世熙 한국 물리학회장, 李泰圭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등 국내 과학기술계 및 문화계인사와 이번 심포지움 주관 기관인 드보느재단회장인 에드워드 드보느박사 등 모두 90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 한국의 기초과학 현황 및 노벨상 수상 가능성,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전망 및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로서 전 인류의 공동관심사인 공해와 생태계, AIDS 문제 등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도토리로 重金屬오염 淨化

추출 성공한 도토리「아콘산」利用

에너지研 張仁順·尹明煥박사팀 開發

도토리에서 빼낸 아콘산으로環境汚染의 주범인 重金屬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국내기술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水質汚染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韓國에너지 연구소 張仁順(핵화공연구부장)·尹明煥(환경공학 연구실장) 박사팀은 도토리에서 아콘산(Acornic Acid)을 추출, 이를 이용해 폐수속에 녹아있는 각종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우라늄뿐만 아니라 니켈(Ni) 카드뮴(Cd) 수은(Hg) 납(Pb) 등 인체에 치명적인 산업폐기물인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이 기술을 美·日·佛·西獨 및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여 최근 미국특허를 얻었으며 프랑스도 특허 공고중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이 도토리 추출액을 중금속이 함유된 용액에 넣어 처리한 결과 미량우라늄은 검출이 어려운 정도까지 처리되었으며 니켈의 경우 100PPm에서 0.5PPm으로, 카드뮴과 크롬은 100PPm에서 1PPm이

하로 오염 농도가 각각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제 니켈과 구리, 크롬, 납, 칼슘등이 20PPm씩 복합적으로 함유된 용액을 도토리 추출액으로 처리한 결과 각각 0.2~0.5PPm으로 오염도가 낮아졌으며 도금공장에서 기존 처리방법으로 처리된 이후의 폐수를 직접 실험한 결과 크롬은 9.2PPm에서 0.2PPm으로, 아연은 44PPm에서 0.6PPm

으로 각각 농도가 떨어지는 것 확인됐다.

이 淨化기술방법은 천연물질인 도토리 추출액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이 높으며 인공적인 화학약품을 사용할 경우의 2차적인 오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오염된 중금속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도토리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식물계에 많이 존재하는 탄닌산과는 다른 물질로 판명되어 연구팀은 이를 세계 최초로 아콘산이라 명명했으며 도토리 1kg에서 추출한 아콘산으로 약 3.4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動畫영상 導出기법 개발

시스템공학센터, 科技모의실험 등에 활용

과학기술 교육 예술분야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등에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애니메이션(動畫)영상 도출기법이 개발됐다.

韓國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시스템공학센터는 「영상을 위한 3차원 물체모델링기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물체를 3차원의 입체動畫영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냈다.

동 센터는 이번 연구에서 비디오를 통한 영상입력, 영상스캐너를 통한 영상자료구조분석에 성공,動畫영상을 입체적으로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영상

모의실험에 성공한 것.

이번 연구결과는 통합사무자동화 및 전자출판시스템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영상에 색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각종 입체설계 및 디자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지원영상기술은 영상처리, 인식 및 인공지능등과 연계되어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용모의실험, 우주산업, 군사, 의료, 교육, 예술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독자적인動畫영상기술개발보다는 외국 기술과 장비를 도입, 사용하는 실정이다.

専門碩士이수제도 施行

科技院, 1년 단위로 전문분야 經歷者 대상

韓國科學技術院은 내년부터 1년 단위의 專門碩士이수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科技院은 이에따라 연말까지 전문석사이수제도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진 및 교수들로 교수진을 구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원은 내년 3월부터 1년에 5백명씩 전문석사를 배출시킬 계획인데 전공학과는 로보틱스, 光기술, 생명공학, 인공위성기술등 첨단기술분야의 10개 학과이며 교육일정은 春季 및 秋季등 2학기 8개월의 강의와 4개월의 실습기간으로 짜여진다.

입학은 시험없이 과기원법에 규정된 소정의 전문분야경력을 쌓고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최근들어 첨단산업기술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의 재교육 및 질적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전문석사이수제도는 碩·博士제도와는 달리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현장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고급인력을 재교육, 이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기원은 이 전문석사이수제도가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

도록 하기위해 현재 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서독의 뮌헨大, 영국의 런던大, 미국의 스텝퍼드大 등과 제휴토록 할 방침이다.

에너지協力方案 모색

韓美 석탄활용기술워크숍

韓國動力資源연구소(소장 金志同)는 美國 피츠버그에너지 연구소와 공동으로 석탄활용기술워크숍을 10월 17~18 양일간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석탄정책」 「석탄연소」 「석탄체광 및 석탄재활용」 「석탄전환기술」 「공해방지」 등 5개 분야에서 3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국과 미국에서 고대로 열리고 있는 이 워크숍은 한·미 양국의 석탄관련연구 종사자는 물론 관련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최신 정보 및 기술교류에 일익을 담당해 왔는데 특히 산업체의 석탄이용기술확대 보급, 석탄활용기술의 선진화,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의 활성화 등 한·미 양국의 에너지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出捐연구기관 運營체계 개편

관계부처의 참여도 확대키로

科學技術處는 최근 산업관련 부처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출연 연구 기관의 활용 및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계를 관련부처 및 기관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연구소의 운영 및 정책결정에 관계부처의 참여도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과기처는 이 개정안을 통해 우선 과기처, 경제기획원, 상공

부 등 7개관계부처 차관, 한국전력 등 3개 정부투자기관장 및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 등 23인 이내의 「출연연구소 육성위원회」를 구성,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조정도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연구소의 설립, 재편, 연구영역조정, 공동운영 기준 마련, 연구개발투자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 개정안은 또 관계부처의 연구개발수요를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연구소별로 전담 기술개발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음향학회

韓國音響學會는 10월 27~28 양일간 국립공원시험원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제3대회장에 安秀桔 교수(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1억4백만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회원확충을 통한 확고한 학회 운영체제의 확립 ▲지부조직으로 회원의 저변확대 ▲학회기금 조성의 적극화 ▲학술발표회 개최로 회원간의 정보교환 ▲워크숍개최로 첨단 산업기술을 소개하여 음향업계 기술향상에 기여 등을 사업목표로 하는 올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서울대 전자공학과 成宏模 교수에게 학술상이 수여됐으며 학회발전에 공이 큰 국립공업시험원 全明식 원장과 李炳昊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에게 감사패와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安秀桔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은 추후 이사회에서 선임키로 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日本 도호규大 Ken'iti Kido 교수의 「Researches on Japanese Dic-

tation System in Tohoku Univ.」등 특강 두편과 「무향실의 음장특성」등 일반연제 29편이 발표됐다.

동학회는 또 27일에는 국제 驟音·振動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이 심포지움에는 미, 일, 독일의 관계전문가 4명이 참석, 국내학자들과 최신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관련정보를 교환했다.

대한내과학회

大韓內科學會는 10월 13~14 양일간 쇼라톤워커힐호텔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 대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黃基錫 교수(경북대의대), 이사장에 金丁龍 교수(서울대의대)를 각각 선출했다.

이밖에도 부회장에 高昌舜(서울대의대), 崔夏鎮(인제의대) 교수, 부이사장에 李禎均 교수(한양대의대)를, 그리고 許甲範 교수(연세대의대)와 鄭圭源 교수(가톨릭의대)를 감사에 각각 선출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개원의와 전공의를 위한 연수 강좌에 이어 「내암검사소견」등 모두 42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대한위생학회

大韓衛生學會는 10월 14일 전북 무주군청회의실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제 2 대회장에 曺允承 회장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 담당관)을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회장 5인 가운데 文相烈(부산시 보건환경연구소 총무과장)·李明遠(국립환경연구원 연구관)씨를 새로 선출하고 나머지 세사람은 유임시켰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호주의 대기오염문제(Peter C. Manins / 호주 CSIRO)」, 「오존층파괴와 건강영향(조윤승 / 국립환경연구원)」, 「협기성 산생성 반응에 있어서 온도 및 PH조건에 따른 생성물질의 분포상태(김동민 / 서울시립대)」, 「버섯의 유리당, 당알콜, 아미노산 및 무기질의 조성에 관한 연구(허운행 / 서울보건전문대)」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화재학회

韓國火災學會(회장 金眞一)는 지난 10월 31일 麗川공단내 위치한 남해화학(주) 강당에서 제9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석유화학콤비나트의 화재예방」을 주제로한 이번 학술강연회에서는 日本 요꼬하마국립대 上原陽一 교수가 「석유화학콤비나트의 화재, 폭발성상」日〈주〉住友석유화학 西川康二 환경보안부장이 「석유화학공업의 화재예방과 안전방법」日自治省 소방청 下河内 司위험물규제과장 보좌가 「일본의 석유화학콤비나트법 규제에 관하여」를 강연했다.

과학기술계뉴스

대한피부과학회

大韓皮膚科學會(회장 宋浚榮)는 10월 20~21일 양일간 호텔 롯데월드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李鍾注교수(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장)를 비롯 상임 위원 6명을 새로 선출하고 전 성영씨(전피부과 의원장)와 고 익태씨(광양 병원장)를 감사에 선임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선 독일 베 르린대학 Constatin E. Orfanos 교수의 「Endothelial Cell Culture : An In Vitro Model for Vascular Cell Broliferation and Response」를 제목으로 한 특별 강연과 접촉피부염에 대한 패 널 디스커션, 유사의료행위에 의한 피부부작용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이 있었으며 「피부종양 1210예에 대한 고찰」등 116 편의 일반연제발표가 있었다.

대한병리학회

大韓病理學會는 금년도 총회 및 제4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새회장에 李泰淑교수 (영남의대), 부회장에 尹鐸求원장(원자력병원), 朴奎浩교수(조선의대)가 선출됐다.

10월 19~21일 서울대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또 감사에 石東壽교수(인제의대)·康相均교수(순천향의대)를 선임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선 「대식세

포의 기원에 대한 실험적연구」 등 90편의 연제가 口演되고 1 백 19편의 논문이 포스터로 발표됐다.

한국식품과학회

韓國食品科學會는 11월 4일 리베라호텔에서 금년도 추계정 기총회 및 제43차 학술발표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회장에 金俊平 중앙대교수, 부회장에 辛孝善 동국대교수·尹漢教충남대교수·李尚建 서울보건전문대 교수·姜晋佑(주)롯데햄·롯데우유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에 李致燮(네슬레식품)·趙漢玉(에너지연 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金東萬 식품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金光玉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부교수에게 학술진보상을 수여하고 6천 8백만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편 총회에 이어 실시된 학술발표회에서는 「Utilization of Sardine and Krill for Foodstuff」 등 특강 4편과 「과채류 선도연장을 위한 신소재개발」 등 51편의 학술논문 발표가 있었다.

동학회는 이에 앞서 3일에는 한국산업미생물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장류 제조기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醬類와 문

화(李春寧 / 한국콩연구회)», 「장류의 제조기술(柳海烈 / 샘 표식품(주)상무이사)», 「장류의 규격, 품질 및 위생(오균택 / 보건사회부)», 「장류의 생산 수급 및 연구현황과 문제점(曹哉銑 / 경희대)」 등 4편의 주제발 표가 있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大韓整形外科學會는 10월 19~21일 힐튼호텔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제33차 추계학술 대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金俊燮교수(한양의대), 이사장에 金永珉교수(서울의대)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石世一 서울의대교수와 姜應植연세의 대교수를 차기회장과 이사장에 각각 선출했다.

한국임상수의학회

韓國臨床獸醫學會(회장 成在 基) 금년도 추계심포지움이 10 월 21일 서울대 수의과대학 강당에서 열려 「소변식과 GnRH 의 역할(TATSUO TAKAHASHI / 日 武田제약연)」「젖소의 변식장애 및 그 치료(李光 源 / 국립종축원 연구원)」「牛群 변식진단프로그램(張仁浩 / 경북대 수의과대)」「한국우 수 정란 이식의 현황(李政鎬 / 한 국수정란이식동물병원장)」 등 4편이 강연됐다.

科總회원단체 11月 학술행사 계획일정

| 단체명 | 대표자 | 행사명 | 일자 | 장소 |
|------------|-------|-----------------|-----------|-----------|
| 대한생리학회 | 고 일 섭 | 추계학술대회 | 11. 1 | 영남대학교 |
| 대한예방의학회 | 김 두 희 | " | 11. 2~4 | 부산한국콘도 |
| 대한외과학회 | 홍 선 희 | " | " | 워커힐호텔 |
| 한국섬유공학회 | 송 석 규 | 추계세미나 | 11. 3 | 대구섬유기술진흥원 |
| 대한지질학회 | 박 희 인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11. 3~4 | 학술원강당 |
| 대한약리학회 | 천 연 숙 |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 " | 고려대학교 |
| 대한임상정도관리학회 | 김 재 식 | 제13차 학술대회 및 총회 | " | 대구프린스호텔 |
| 대한환경공학회 | 신 응 배 | 추계학술발표회 | " | 조선대학교 |
| 한국식품과학회 | 권 태 완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 | 호텔리베라 |
| 한국생물공학회 | 목 영 일 | 추계학술대회 | 11. 4 | 아주대학교 |
| 한국과학사학회 | 이 찬 | 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 | 계명대학교 |
| 대한화장품화학회 | 오 원 식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11. 4 | 제약회관 |
| 한국토양비료학회 | 박 천 서 | " | " | 서울대 농대 |
| 대한기체학회 | 손 명 환 | 추계학술대회 | " | 숭실대학교 |
| 한국군사운영분석학회 | 황 관 영 | " | 11. 9 | 중소기업회관 |
| 한국주조공학회 | 안 두 식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11. 10~11 | " |
| 대한조선학회 | 김 진 안 | 추계학술발표회 및 특별강연회 | " | 한국해사기술연구소 |
| 대한원격탐사학회 | 이 상 수 | '89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11. 11 | 과학기술회관 |
| 대한산업공학회 | 원 진 희 | 추계학술발표회 | " | 성균관대수원캠퍼스 |
| 한국조리과학회 | 이 혜 수 | 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 | 학술진흥재단 |
| 한국생화학회 | 한 문 희 | 총회 및 학술대회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대한용접학회 | 엄 동 석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 | 충남대학교 |
| 한국폐기물학회 | 이 승 무 | 총회 및 연구발표회 | " | 연세대원주캠퍼스 |
| 한국정보과학회 | 이 철 희 | 정보통신 추계단기강좌 | 11. 16~17 | 워커힐호텔 |
| 대한면역학회 | 하 대 유 | 추계학술대회 | 11. 17 | 연세대학교 |
| 한국대기보전학회 | 차 철 환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 | 국립환경연구원 |
| 한국약제학회 | 지 웅 길 | " | " | 제약회관 |
| 한국윤활학회 | 문 탁 진 | "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한국정보과학회 | 이 철 희 | 신경망워크숍 | 11. 17~18 | 한국종합전시장 |
| 한국고무학회 | 김 준 수 | 제2차 고무기술 기초강좌 | " | 부산화학시험검사소 |
| 한국섬유공학회 | 송 석 규 | 추계학술발표회 | " | 충남대학교 |
| 한국유전학회 | 박 상 대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11. 18 | 서울대학교 |
| 한국균학회 | 이 형 환 | " | " | 전국대학교 |
| 대한초음파학회 | 박 수 성 | 추계연수강좌 | " | 서울대학교 |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 정 현 채 |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 | 경희대학교 |

과학기술계뉴스

한국요업학회

韓國烹業學會(회장 安永弼)는 10월20~21 양일간 명지대학교에서 금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회장에 張性道씨(한국과학기술원 재료부장), 부회장에 李昌殷(연세대 교수)·李應相(한양대 교수)·李東白(쌍용양회 부사장)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내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학회상 시상이 있었는데 최석홍(뉴세라믹스 연구소)·이형복(명지대 교수)·현상훈(연세대 교수)씨에게 학술진보상이, 오복진(쌍용중앙연구소)·김찬수(덕영기업대표이사)·이웅원(삼화요업사장)씨에게는 기술진보상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연구발표회에서는 화학연구소 박희동박사의 「세라믹스 복합재료의 화학적 적합성 연구」등 4건의 특별강연 「산화붕소 및 수소화붕소로부터 합

성된 질화붕소의 결정성에 관한 연구」등 일반연제 152편이 발표됐다.

동학회는 또 27~28일에는 부산대 공대제도관 시청각실에서 제4회 내화물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질화 알루미늄재료의 특성과 용도에 관하여」등 특강 두편과 「SOL-Gel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고순도 Mullite 물성연구」등 연구발표 14편이 있었다.

대한토목학회

大韓土木學會(회장 文濟吉)는 10월28일 서울대학교에서 금년도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선 「구조」「수공」「시공관리 및 항만·해양」「측량」「토질 및 기초」「환경공학」등 12개분야에서 「철근 및 PS강봉의 피로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등 13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동학회는 학술발표에 이어 29일에는 江東大橋건설공사현

장등 교량 건설공사현장 견학회를 가졌다.

한국부식학회

韓國腐蝕學會(회장 南宗祐)는 11월4일 과총회의실에서 금년도 추계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 황준영박사의 「초내열합금의 용융염부식」등 특강 2편과 「조선용강재의 부식피로 균열전파속도에 미치는 시험편 두께의 영향」등 19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대한토질공학회

大韓土質工學會(회장 金翔圭)는 10월27일 연세대 알렌기념관에서 금년도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모형실험에 의한 말뚝지지력연구(이명환 / 건설기술연구원)」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단체명 | 대표자 | 행사명 | 일자 | 장소 |
|-----------|-----|----------------------|--------|----------|
| 대한전자공학회 | 이충웅 | 총회 및 추계종합학술대회 | 11. 18 | 서울대학교 |
| 공기조화냉동공학회 | 최상홍 | 동계학술대회 | 11. 24 | 인터콘티넨탈호텔 |
| 한국정보과학회 | 이철희 | 제1회 충청지부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11. 24 | 충북대학교 |
| 한국자동차공학회 | 조경국 | 추계학술대회 | 11. 25 | 자동차공업회관 |
| 대한전기학회 | 박영문 | " | " | 중앙대학교 |
| 한국정보과학회 | 이철희 | 그래픽 및 설계자동화초청강연회 | " | 한국종합전시장 |
| 한국정보과학회 | 이철희 | 데이터베이스초청강연회 | " | 대한상공회의소 |
| 한국정보과학회 | 이철희 | 제8회 정보산업리뷰심포지움 | 11. 29 | 한국종합전시장 |

과학기술계뉴스

한국심리학회

韓國心理學會는 10월 27일 이화여대가정대학관에서 금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任能彬 교수(부산대 사회과학대 교수), 부회장에 安晨鎬 교수(부산대 사회과학대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정신문화 연구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 워크숍에는 미국, 호주, 중국, 일본등 16개국에서 관계전문가 30명이 참석, 주제발표와 토론을 갖게 된다.

한편 학술대회에선 「글의 위계와 의사정보의 처리과정」 등 29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동학회는 이어 28일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간요인」을 주제로 한 추계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연세대 이훈구교수의 「정보화사회에서의 심리학의 역할」 등 7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한국가축번식학회

韓國家畜繁殖學會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李根常부회장이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동학회는 10월 28일 대구대

농과대학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열고 부회장 3인 가운데 金昌根교수(중앙대)를 새로 선출하고 정길생 교수(전국대 축산대)와 임경순 교수(서울대농대)는 유임시켰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Takahara Ohchi 박사(AZABU Univ.)의 「난소기능에 미치는 Epidermal Growth Factor의 영향」 박충생박사(경상대)의 「Steroid Hormone Metabolism에 관련된 Cytochrome P450s에 관한 연구동향」 등 두편의 특강과 「제주마와 개량마의 번식상황과 번식장애원인에 관한 연구」 등 15편의 논문발표가 발표됐다.

한국산업미생물학회

韓國產業微生物學會(회장 柳洲鉉)는 10월 28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금년도 추계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회장에 梁漢喆교수(고려대 농대 생물공학연구소)를 선출했다.

총회와 함께 실시된 학술발표회에선 美 캘리포니아대 D.Y.Ryu 교수의 「Research Strategies and Opportunities in Bioprocess Engineering」 등 초청강연 3편, 서울대 이호교수의 「Lactobacillus Acidophilus on Colon Carcinogenesis」 등 특강 6편, 「구연산 생산을 위

한 평판형 생물반응기의 개발」 등 口演 54편과 34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한국물리학회

韓國物理學會(회장 安世熙) 제59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논문발표회가 10월 27~28일간 부산대에서 열려 입자물리학분과 등 8개분과에서 초청강연 38건과 일반연제 428편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1억 1천 2백만 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시키고 학회상시상이 있었는데 朴萬藏고대교수 등 9명에게 논문상을, 鄭泰勳동아 대교수에게는 장려상을 수여하는 한편 高允錫전회장 등 전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Perovskite형 강유전체와 고온 초전도체」 「새로운 국제온도 눈금 ITS-90에 대한 소개」 등 초청강연 38편과 「입자물리학」 「원자핵물리학」 「고체물리학」 「응용물리학」 「열 및 통계물리학」 「플라즈마」 「광학 및 양자전자학」 등 8개분과에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코발트박막의 자기구역구조에 관한 연구」 등 41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으며 「물리과학교육과 교과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는 「물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구조와 지도법 및 교재연구」 등 15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지구과학회

韓國地球科學會는 지난 9월 23~24 양일간 육군사관학교 홍무관에서 열린 금년도 정기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새회장에 閔庚德교수(경북대 천문기상학과), 부회장에 安希洙교수(서울대 지구과학과), 曹炷煥 교수(조선대 지구과학과)를 선임했다.

총회와 함께 실시된 학술 발표회에선 「한국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일현상」등 38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으며 아울러 지구과학 기기 및 사진전시전과 시청각 자료전시회도 개최됐다.

대한약학회

大韓藥學會(회장 禹源植) 제 38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10월 27~28 양일간 충북대 약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89년도 追更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시키고 전동덕여대 김상민 교수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또한 학회 발전에 공이 큰 관계자들에게 감사패 및 공로 패를 수여하고 금년도 학회상 수상자로 서울대 생약연구소 김 국현교수에게 학술상을, 강원 대약대 김현표교수와 유한양 행 서정진박사에게 장려상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선 중국 연

변의학원 金禹權처장의 「두발의 미량원소와 抗老약물」등 특강 5편을 비롯 분과학회 특강 8편, 「약물수송체개발」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 5편과 「생약함유 재산소화제 평가 개발에 관한 연구」등 일반연제 237편이 포스터와 口演으로 발표됐다.

한국농업교육학회

韓國農業教育學會(회장 李茂根) 창립20주년기념 국제학술 발표대회가 10월20일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열렸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동 학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의 미래와 농업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발 표회에서는 「농촌경제 및 사회의 변화와 농촌지도사업(신동완)」「미국의 농업교육과 농촌 사회의 미래(Dr. Gordon I. Swanson)」「농업생산성의 발전과 농업교육의 변천(이용환)」「농촌지도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최민호)」등 8편의 주제발 표가 있었다.

한국고무학회

韓國고무學會(회장 金駿洙)는 10월20일 한국화학시험 검사소 부산지소 강당에서 금년도 추계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제14회 고무기술진보상을 朴世勇씨(興亞工業)에게 수여하고 학회 육성·발전에 기여한 柳震壽씨(대한화학공업<주>대표이사)등 4명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辛春桓씨(한국신발연구소 재료제1연구실장)의 「수지의 개질방법과 고무와의 Blend」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고무물성에 미치는 국산무기충전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金奇珠外)」「NR BR SBR Compound의 파괴 표면 특성연구(韓瑢埴)」「고무배합물의 押出: 흐름양상과 압출물 특성(宋漢鍾)」등 3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한국우주과학회

韓國宇宙科學會(회장 羅逸星)는 10월27일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서 금년도 가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위성과 과학로켓트」「우주관측기술」「은하계」「항성계」등 4개 분야에서 연세대 권성택교수의 「운석의 나이」문신행천문우주과학연구소장의 「 γ -ray 천문학의 Detector System」전북대 김철희교수의 「On the Nature of Dwarf Cepheids」등 초청강연 세션과 「과학연구용 로켓트 SR-1의 System Integration 연구」등 22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